

무엇을 보고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실체는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2월호

이강하미술관 개관 2주년기념 3월10일까지 '주관적 변용' 전
표인부·김철아·신도원 참여... '바람의 기억' 시리즈 등 전시

광주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기획전시 '주관적 변용'을 오는 3월 10일까지 열고 있다.

표인부, 김철아, 신도원 작가를 초청한 이번 전시는 세 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주관적 시선으로 바라본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의 실체는 현실인지 허상인지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올 봄 대규모 중국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표인부 작가의 작품은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힌 한지 수전, 수만장을 한장 한장씩 반복적으로 찢거나 세워 붙이는 공력이 경이롭게 느껴진다. '바람의 기억' 연작에서 다양한 색감의 한지가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레 만들어내는 그라데이션과 조형미는 화면에 리듬감과 운동성을 부여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전해준다.

표 작가는 조선대 회화학과 중국 남경 예술대학 미술과 수인목판화 전공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16차례 개인전을 열

었다.

김철아는 물, 세포, 재, 곰팡이 군사처럼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 보지 않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미한 생물체에 대한 존재와 형태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탐구해 온 작가다. 실크 천 위의 집요한 세필작업이 만든 형상들은 예민하고, 그 형상들 사이를 파고드는 흑과 백의 중첩은 강렬함을 만들어낸다.

김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거쳐 인도 바로다 마하라자 사야지라오 예술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2016년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참여작가였으며 인도 더 컬렉티브 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 국제교류뱅크아트 스튜디오 NYK입주작가로 활동했다.

미디어 아티스트 신도원은 무의식 중 떠오르는 드로잉 이미지를 모아 모니터나 가변의 망사 프레임에 미디어 영상작업을 투영시키는 작업을 보여준다. 신작 '신도원 x 이강하 파라다이스, 2020년'(installation video, 3)는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허물어 미술관 안에 가상공간을 연출한 작품으로 이강하 작가의 1970년대



표인부 작 '바람의 기억'

홍상과 함께 배치한 게 특징이다. 흥익대를 졸업한 신 작가는 유네스코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감독을 역임했

으며 프랑스 앙기앵 레뱅 미디어 아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예남



'버려진 공장, 아트 팩토리로 부활하다'

산업화시대의 상징물인 폐(廢)산업유산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 기능을 다한 석유비축기지(서울)와 연초제조창(청주), 제분공장(대구), 와이어공장(부산), 막걸리 주조장(담양) 등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남' 2월호는 특집 '버려진 공장, 아트 팩토리로 부활하다'를 통해 예술창고로 변신한 곳들의 문화공간을 찾아간다. 도시재생을 앞둔 광주 상무소각장과 방직공장은 미래에 어떤 공간으로 변모해야 할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광주 도시재생 사업의 지향점을 모색해 본다.

예향초대석에서는 최상일 서울 우리소리박물관 초대 관장과 함께한다. 과거 전통 농경사회에서 모를 심고, 보리를 타작하고, 아이를 기르는 삶의 현장 어디에나 토속민요가 함께 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농촌공동체의 붕괴에 따라 더 이상 불려지지 않게 됐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리를 채득하고 기록하는 대장정을 해온 최상일 관장의 '민요' 이야기를 들어 본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봄의 전령사' 매화를 만나고 왔다. 매화는 매화인데 사계절 꽃이 핀 '윤화매(輪花梅)'다. 밀랍으로 만든 매화인 윤화매는 조선 정조때 실학자였던 정장관 이덕무 선생이 창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무 선생의 삶과 윤화매의 고귀함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

다음 김창덕 작가에게서 윤희매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본다.

'짜콕짜콕남도 한 바퀴'는 고흥으로 떠나는 '드림여행'이다. 고흥은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다. 국립 청소년우주센터와 우주천문과학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우주체험 프로그램도 고흥만의 자랑이다. 유자와 커피, 장어 등 먹거리도 여행자의 입을 즐겁게 만든다. '2020 고흥 방문의 해'를 맞아 고흥의 역사와 문화, 자연속으로 들어가 보자.

'클릭, 문화현장'은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순천 문화의 거리와 청춘창고로 안내한다. 3년 전 양곡창고를 청년들의 창업인큐베이터로 키워 이름을 떨치더니 요즘엔 영동 1번지, 문화의 거리 등을 독특한 공간과 조형물로 꾸민 덕분에 '인생사진'을 찍으려는 2030세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전천후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순천의 문화명소들을 둘러 본다.

'문항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떠나는 문학기행은 격동의 20세기를 온몸으로 살았던 작가 요산 김정환을 만날 수 있는 부산 집정환 문학관으로 향했다.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은 공공건축 혁신으로 살아난 작은 도시 영주를 소개한다. 2020 광주일보 신춘꽃이 핀 '윤화매(輪花梅)'다. 밀랍으로 만든 매화인 윤화매는 조선 정조때 실학자였던 정장관 이덕무 선생이 창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무 선생의 삶과 윤화매의 고귀함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5·18 가치를 영화로 '시민참여형 광주브랜드영화 워크숍' 2월12일부터

광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영화로 표현하고 차세대 광주 영화인을 발굴하는 시민 참여형 워크숍이 열린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는 사회적기업 문화콘텐츠그룹 이다와 함께 2월 12일부터 3주간 '시민참여형 광주브랜드영화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주제로 기

획, 시놉시스 작성, 촬영, 편집 등 영화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은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회를 갖고 완성도에 따라 광주지역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또 5·18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특강을 준비했다. 첫 특강은 '김군' (2019)의 강상우 감독을 초청,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워크숍 참가자들과 영화 '김군'을 관람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실제 영화제작에 필요한 조연과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단편영화에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 번째 특강은 '오월지기와 함께하는 5·18 이야기'로 오월지기의 해설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영화 '신기록'의 이경호 감독과 문화콘텐츠그룹 이다의 김갑산 PD, 광주여성영화제와 허지은 감독이 강의를 펼친다. 워크숍은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영화 '김군'

할 수 있으며 2월 7일까지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큐레이터 7명 위촉

고충환·이승미·윤진섭 등

전남도는 30일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주제관별 전시연출을 기획할 선임 큐레이터 7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큐레이터는 미술평론가, 미술관장 등 전시기획 전문가로 '오채찬란 모노크롬'이라는 비엔날레 주제를 세부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유명 작가·작품 선정과 전시·연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전시 주제관별로 보면 국내 대표적인 중견 수목 작품과 세계적인 해외 수목 작품을 선보일 '현대수목' 큐레이터에 고충환 미술평론가, 예향 전남만이 보유한 정통 수목 작품을 선보일 '남도의 맥' 큐레이터에 이지호 전 목포문화재단 정책위원이 선임됐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생활 속의 디자인 수목' 큐레이터에 한복디자인어 이영희 기념전시 등을 기획한 정성민 AMM 아트디렉터, '수목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 미술작품을 선보일 큐레이터에 윤진섭 미

술편론가도 포함됐다.

또 수목과 도시재생을 결합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큐레이터에 운동회 전 광주비엔날레 학술지 편집위원, '국제적 지던시와 서울·광주특별전'에 이승미 행촌미술관 관장과 김지훈 전 제6회 광주 국제아트페어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각각 선임됐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수목 비엔날레는 수목의 대중화, 국제화, 브랜드화를 위한 현대적 감각의 전시연출 기획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남도 수목화의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리고 남도 예향의 위상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15개국 16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수목전시, 국제제던시, 학술심포지엄, 수목 패션쇼·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CC '우산도둑' 서울어린이연극상 3관왕

대상·연출상·관객인기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하 ACC)이 제작한 '우산도둑' <사진>이 제28회 서울어린이연극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ACC는 최근 서울 JCC크리에이티브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0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폐막식 겸 시상식에서 '우산도둑'이 대상, 연출상, 관객인기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시테지 코리아가 지난 1992년 제정한 서울어린이연극상은 국내 아동·청소년 공연을 대상으로 한 상이다.

'우산도둑' (연출 김예나)은 스릴링작가 웨타신하의 '우산도둑' 그림동화를 원작으로 ACC와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AC)이 창·제작한 작품이다. 우산을 두고 벌어지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뤘다.

작품은 '2018 ACC 어린이공연 창작지



원사업' 공모를 통해 탄생했으며 지난해 4월과 10월 ACC 어린이극장 정기공연으로 선보였다. 10월 공연에서는 연극 장면을 읽어주는 음성해설과 전문수어통역사의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공연으로 새롭게 선보여 큰 호평을 이끌어 냈다.

한편 ACC는 오는 3월께 '제3차 창·제작 어린이공연 개발 쇼케이스'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

'그림과 함께 읽는 한국고전문학' 은암미술관, 31일 두 번째 강좌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그림과 함께 읽는 한국고전문학' 두 번째 강좌를 진행한다.

31일 오후 4시 열리는 이번 강좌의 주제는 '야담과 풍속화로 보는 조선 후기 일상'으로 김준형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김 교수는 임진왜란 이후 급속도로 상업화되어 가는 조선 후기 서울의 세태, 풍속, 지금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을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살펴

볼 예정이다.

고려대에서 '조선조 패설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교수는 '한국패설문학연구' '이매창 평전' 등을 펴냈으며 '가려뽑은 제단' '당진연의' 등을 번역했다.

조선대인문학국플러스사업단 지역문화센터가 함께하는 행사로 오는 5월 29일까지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강의 이어진다.

/김미은 기자 mekim@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